

호천 테마 독서

"평화"



전주호천초등학교 도서관



〈평화가 평화롭기 위해〉 채인선 / 뜨인돌어린이

평화를 유지하길 누구나 간절히 바라지만 세상에는 평화를 해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과 각종 범죄, 재난 등 뉴스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지요. 우리 사회가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해요. 평화를 가꾸려는 노력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답니다.

〈평화를 지키는 아이들〉 아닉 드 지리 / 파란자전거

지구촌의 평화는 존중이라는 두 글자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수많은 나라에는 인종과 종교, 피부색과 성별 등 다른 점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한다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요. 어른들도 어렵게 느끼는 일에도 선뜻 나서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 이야기 속 8명 아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아요.



〈그해 유월은〉 신현수 / 스펀북

1950년 6월 25일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평화로운 날들을 지내던 종희의 가족에게도 비극이 찾아왔어요. 아빠와 오빠는 전쟁터에 끌려가고, 피난길에서 가족들과 헤어지는 상황을 겪게 된 종희는 고아원으로 가게 돼요. 엄마의 생사를 알 순 없지만 언젠가는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 가는 종희. 과연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웃어요!〉 임형준 / 찰리북

전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 명이 먹는 것이 부족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지구촌 곳곳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먹고살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요.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되돌려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